

"젠슨 황 다녀간 '2만원 삼계탕'"...서민은 꿈도 못 꾸는 외식물가, 7-8월에 더 오른다?

김주리 입력 2026. 6. 21. 22:25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방문해 화제를 모은 서울의 유명 삼계탕 전문점 토속촌에서는 기본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에 달한다. 종로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고려삼계탕 역시 기본 메뉴 가격이 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복이나 배양근 등을 추가한 보양식 메뉴는 2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초복에 삼계탕 한 그릇 먹는 것도 사치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여름 외식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이 평년보다 많은 비와 강한 폭염을 예고한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육계 닭고기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kg당 665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5568원)보다 19.4% 오른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올해 2월만 해도 5900원대였지만 3월 6300원대, 4월과 5월 6500원대를 거쳐 이달에는 6600원선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밥상 물가 품목인 계란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달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222원으로 지난해 6월(3786원)보다 38.6% 올랐다. 월평균 기준으로 특란 10구 가격이 50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계란 한 개 가격이 500원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특란 30구 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9000원대에 판매되기도 한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지난해 겨울부터 확산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1121만6000여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었고 육계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일부 대형마트는 할인 판매 계란에 대해 '1인 1판'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복날을 앞두고 보양식 수요까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졌다. 폭염이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로 이어져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 불안은 계란과 닭고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대파 소매가격은 kg당 2827원으로 지난해 6월(2388원)보다 18.4% 상승했다. 적상추와 청상추의 100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도 각각 1023원, 1024원으로 지난달보다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표 여름 과일인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가격도 2만429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비싸졌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수산물인 염장 고등어의 경우 이달 1손당 소매가격이 1만803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6월(8541원)보다 26.5% 상승했다.

문제는 물가 불안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폭염과 장마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6월 중순 서울의 평년 최고기온은 27~28도 수준이지만 올해는 이미 30도를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는 지난 18일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시점이다.

정부도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8000t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총 3만4000t 규모의 비축 물량을 필요 시 즉시 방출할 계획이다. 계란은 3000만 개 이상을 수입하고, 닭고기는 부화용 종란 1700만 개를 순차적으로 들여와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 이은희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 생산성 저하 속도가 워낙 빨라 단기간에 공급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이 밥상 물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폭염과 이상기후가 반복될 경우 농축수산

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